

동계올림픽 시설에 3조90억

경기시설·SOC 분야 등 지방비 1조 9755억 투입도 “국비 추가지원 절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기장 등 필수시설에 총 3조90억원이 투입됐으나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2조원에 이르는 등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해까지 국비 1조 335억원과 지방비 1조 9755억원 등 총 3조 90억원이 투입됐다.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조 4745억원을 선투자해 올림픽 시설과 알펜시아를 조성했다.전액 지방비로

◇2018동계올림픽 준비 투자액

	국비	지방비
2004~2010	-	1조4745억원
2012~2016	1조335억원	5010억원
합계	1조335억원	1조9755억원
총투자액	3조90억원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3개 경기장 건설에 2711억원,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에 1조 2034억원을 사용했다.

올림픽을 유치한 2010년 이후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지방비도 추가로 투입됐다.올림픽 준비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올림픽 개최 준비에 총 1조 5345억원이 들어갔다.경기장 진출입로와 경기장 건설에 1조 2338억원,경관·시설 정비에 3007억원이 소요됐

다.전체 투입 예산 가운데 국비는 1조 335억원이며, 나머지 5010억원은 지방비다.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총 1조 9755억원을 쏟아 부었다.재정자립도 18%인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국비보다 무려 9420억원을 더 투자를 했다.평창올림픽은 SOC분야까지 확대하면 총 투자액은 14조 5000억원에 달한다.주요 SOC사업으로 원주~강릉 철도를 비롯해 기존선 고속화 사업,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사업에 11조 5319억원이 투입됐다.

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도가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자체 투입한만큼 국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오인

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14개 직종 64명 수상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건설안전·품질향상 앞장서 달라”

최삼규 건단련 회장 강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삼규 회장은 “수상자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건설산업의 원동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건설안전과 품질향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당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건설기능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상자는 64명이며 여성 기능인도 11명에 달했다.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2·3위 입상자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열린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서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뒷줄 왼쪽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 대회 각 부문 1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회 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7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특전과 함께 19일부터 2박3일간의 해외산업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1992년부터 해마다 열렸다. 제24회 대회는 지난 9월23일 충북 음성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08명의 건설기능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최삼규 회장을 비롯해 신흥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과 유관기관장, 수상자 가족 및 소속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직종별 1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거푸집 신동성(구보건설) △건축목공 김용균(수은공예)

△미장 이정규(선운건설) △조적 최정수(신동아특수방수) △철근 윤명수(구보건설) △타일 김선식(수빈건설) △배관 성광현(삼보이엔지) △전기용접 정낙성(대정설비) △도장 이문성(삼양건설) △전산응용도목제도 최정윤(성일개발) △측량 이규성(동행엔지니어링) △조경 이래만(유성건설) △실내건축제도 문준자(태완개발) △방수 안재국

한상준기자 newspia@